

전주 8개 도서관으로 떠나는 인문학 바캉스

시, 문체부 ‘길 위의 인문학’ ·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8개 도서관 총 9개 프로그램 선정

전주지역 8개 도서관이 여름철 시민들이 문학과 AI, 판소리 등 다양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거대한 인문학의 숲이자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제공된다.

전주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8개 도서관, 총 9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관은 삼천·송천·금암·죽구름·아중호수·서신·평화·효자도서관이다.

이 가운데 일상과 가까운 인문 프로그램을 다루는 ‘길 위의 인문학’은 5

개 도서관에서 펼쳐지고, 심화 과정인 ‘지혜학교’는 4개 도서관에서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5일 삼천도서관에서는 영미문학을 통해 세상과 우리를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같은 날 죽구름도서관에서는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세계 문화 여정을 떠날 수 있다.

이어 평화도서관은 오는 8월 8일부터 ‘AI시대, 나의 생활 방식을 다시 설계하다’를 주제로 AI 강의와 AI 물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수업을 진행하며, 서신도서관은 오는 8월 18일부터 이 가운데 일상과 가까운 인문 프로그램을 다루는 ‘길 위의 인문학’은 5

한다. 또, 효자도서관은 오는 8월 27일부터 문학, 역사, 예술을 통합한 ‘문학으로 떠나는 유럽’ 심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사색의 계절인 9월에는 ‘나의 삶’과 ‘우리의 전통’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송천도서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의 경험을 서사로 재구성해보는 ‘드라마 인문학’을 시작하며, 금암도서관은 9월 3일부터 한국 미술사 속 자연을 고찰하는 강연을 이어간다.

또, 9월 9일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기념미술을 이해하고 작품을 제작해 전시까지 해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도 진행된다.

여기에 아중호수도서관은 9월 9일부터 강연과 공연을 만나들며 한국의 판소리와 인문학을 연결하는 소리의 고장 전주다운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도서관이 책을 대출해 주는 1차원적 공간을 넘어, 시민이 삶을 성찰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여름철 멀리 떠나는 피서도 좋지만, 집 앞 도서관에서 열리는 풍성한 인문학 바캉스를 통해 많은 시민이 인문학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스페인 마드리드 Resa Chamartin 대학생 기숙사에서 ‘전주음식·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비빔밥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홍보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스페인서 펼쳐진 비빔밥 체험 행사

전주시,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위한 글로벌 홍보 전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스페인 마드리드 Resa Chamartin 대학생 기숙사에서 ‘전주음식·문화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비빔밥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홍보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의 문화적 가치와 철학을 알리고,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스페인을 문화탐방 중인 우리나라 전국 대학생 46명과 이들이 초청한 스페인 및 외국 대학생 46명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은 함께 비빔밥을 만들고 나누어 먹으며 한국 음식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시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 비빔밥이 지닌 공동체성, 전통성, 지속가능성 등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핵심 가치와 연계된 의미를 해외 청년들과 공유하는 국제 문화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빔밥은 다양한 식재료가 하나의 그릇에서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과 소통, 배려의 문화를 담고 있다. 또, 계절 농산물과 채소 중심의 식문화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음식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비빔밥의 본고장인 시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세계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후 전통과 창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전주의 가치를 더욱 세계에 알리고자 다양한 유네스코 창의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만호 기자

‘소소하지만 다정한 전주 여름밤 이야기’

시, 무료 야간해설투어 운영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밤 정취를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 도보 해설투어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숙박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세 달간 야간 해설 투어 프로그램인 ‘소소하지만 다정한 여름밤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낮 시간대의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전주의 대표 문화유산과 숨은 명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어는 매일 오후 7시 경기전 매표소 앞에서 출발하며, 별도의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야간해설투어에는 문화관광해



전주시는 야간 해설 투어 프로그램인 ‘소소하지만 다정한 여름밤 이야기’를 운영한다.

설사가 순환 배치돼 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고 생생한 스토리텔

링을 들려줄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전주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 동선을 인근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일지별로 2개의 매력적인 코스를 병행 운영한다.

먼저 1코스는 경기전 정문에서 출발해 전통성당, 골목길, 향교길을 거쳐 남천교 청연투와 전주향교, 은행로 사거리로 이어지는 경로로,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야경과 서화예술마을 인근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다.

2코스는 경기전 광장에서 전통성당, 풍남문을 지나 웨딩의 거리를 거쳐 전라감영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태조 이성계와 전주의 관계부터 전라감영 주변에 담긴 근대 골목 이야기까지 전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야간 경관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해설 코스는 기상 상황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해설사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된다.

개인 관광객은 매일 오후 7시 집결 장소인 경기전 매표소 앞으로 오면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관광객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별도 투어 진행도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프로그램 ‘마음토닥’ 운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스트레스관리): 마음토닥’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23년 실시한 전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마음토닥’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운영 대상을 확대해 프로

그램의 효과성과 현장 만족도를 검증했다.

올해는 기존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을 함께 다루는 구조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올해 마음토닥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6개 학교 19학급, 46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올해 참여 학교 중 3곳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신청했으며, 2개 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 감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마음토닥’은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확대 운영 △고도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추진을 통해 구축된 전주형 청소년 심리 안정 지원 모델로, 센터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예방 중심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서화예술마을도서관, 어린이 예술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전주시는 14일부터 서화예술마을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예술 프로그램인 ‘알록달록 예술 바캉스’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서화예술마을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다소 난해할 수 있는 현대미술에 대해 배우고, 아크릴 물감, 이쑤시개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 4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 진행되며, 오감 미술퍼포먼스 단체인 다싯손가락의 한신희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 세계와 이를 활용한

작품활동을 이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화차별로 △게르하르트 리히터와 만나요(1화차) △존스 미술사 테투야 유켄(2화차)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3화차) △스콧 위버와 함께하는 이쑤시개 세상(4화차) 등이 예정돼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 또는 전주시 특성화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화차별로 3주 전부터 가능하며, 전주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